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1차) 회의록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3. 12. 27.(수) 10:00 ~ 11:30

□ 장 소 : 행정관 4층 소회의실

□ 참 석 : 위원 9명 중 8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강남규 위원, 박성원 위원

- 학교대표 : 유준희 학생처장, 박원호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이도연 대학원 학생회장, 조재현 前 학생회장, 박용규 前 부총학생회장

- 간 사 : 엄은미 예산과장

※ 배석 : 이찬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 학생부단장, 교무과 전소연 행정관, 첨단융합학부 최선영 주무관, 예산과 황희영 행정관

※ 학생 측 참관 : 박준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23학번)

2.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 결과

○ 안건 1 (202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합의함.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는 인상 검토도 필요한 점에 공감함.

○ 안건 2 (첨단융합학부 등록금 책정(안))

- 첨단융합학부의 설립준비단과 학생 측의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 후 1.3.(수) 오전까지 최종적으로 등록금 책정(안)을 결정하기로 함.

□ 회의 개최

○ 위원 소개 및 인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관련

- 기획처장 : 위원이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통상적으로 협의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하였고, 학생 측과 학교 측 추천위원회에서 번갈아 부위원장직을 해오셨으므로 강남구 위원회에서 위원장, 학생 추천 박성원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시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들 만장일치로 강남구 위원이 위원장, 박성원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

□ 안건 1.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간사 회의자료 설명
- 안건 1 회의내용
 - 외부위원 : 출연금 한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 내부에서 바꿀 수 없는 내용인지? 그리고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 전입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해당 전입금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 학교대표 : 국고출연금은 단위 시설 사업에 대하여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 건물을 지을 때는 300억 이하로 국고출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단가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자체재원으로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간 사 : 매년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 전입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자보다는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대표 : 지난 한 4년 동안 국고 출연금이 매년 5-7%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입금 비중이 줄어들어,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R&D 예산이 줄어들 예정으로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동결 기조로 보아야 하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학생대표 :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공요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자산운영과를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학교 건물들은 교육용 시설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교육용 건물이 아니라 복지용 건물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번에 공공요금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에 이런 이유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공요금의 급격한 증가로 늘어난 것인지?

- 간 사 : 학교 건물은 교육 시설이고, 임대 매장들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배분하면 임차인들이 납부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예산의 급격한 인상이 해당 사유 때문은 아님.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단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이 거의 20~30%씩 오른 상황임. 회의자료의 내용은 교육용 단가가 기준임.

- 학교대표 :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였을때의 실익과 대외적인 여건을 비교하여 고려해보았을 때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학생대표 : 학생 측에서는 금년도 등록금 동결을 제안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었음.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는 학교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전반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번에는 동결하고, 추후에는 앞서 말한 부분들이 고려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제시된 향후 고려 사항 중 재원 확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에서 말씀하신 국고 출연금의 제한 등의 문제로 자체 재원 마련은 당연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을 위해 등록금 인상 시 이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차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직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차근차근 학교와 학생측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음.

- 학생대표 : 대학원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구조는 R&D 예산 등 정부에서 주는 외부 연구비를 학교에서 인건비로 받고, 학교에서 이를 대학생들에게 장학, 조교, 연구 등 분야에서 활동하게

하며 인건비로 주어 다시 회수하는 구조임. 학생 측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하거나 연구비와 장학금에 의존해서 등록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50%가 넘음. 따라서 등록금 인상이 되려면 대학원생의 경제적 상황 및 안정을 고려해야 함. 특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인건비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고려가 필요함. 대학원생들은 결국 학교의 재정으로 대학원생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 주었으면 함.

- 학교대표 : 사외이사 겸직교원의 경우 겸직에 따라 제공받는 금전적 지원의 총액에서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 가량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규정이 있음. 이를 대학원생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장학금으로 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등 연구 R&D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재정이 튼튼해야 장학금을 또 그만큼 더 많이 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동결해 나가는 어렵다는 생각임.
- 위 원 장 : 학교 측도 금년도 등록금 동결을 희망하는지?
- 학교대표 : 금년도 동결을 희망함. 다만, 등록금을 동결하려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학교가 충분히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학교의 입장임.
- 위 원 장 : 학생 대표께서는 우리가 내는 등록금의 효익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학교 측은 재정이 건설해야 장학금도 주고 대학원생들 인건비도 줄 수 있다는 대립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제시된 통계들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에 비해서 등록금이 거의 십여년간 동결 혹은 인하해왔으나, 현재의 물가상승률통 고려했을 때 등록금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해 볼 여지가 있음.
- 학교대표 : 아까 말씀주신 대학원생 장학금의 경우, 장학복지과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대략적으로 나온 안건을 검토해서 법인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여 반영해 보고자 노력할 예정임.
- 학교대표 : 학부생들이 학교 재정 압박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관점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ESG 관련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서울대가 자체 노력을 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외부위원 : 이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장학금으로 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음.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동의한다면, 만약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인상분을 전액 장학금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을 향후를 위하여 회의록에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함.
- 학교대표 : 장기적으로 등록금을 계속해서 동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가 어려울뿐더러 이 인상분을 전액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함. 만약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임.
- 학교대표 :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노력 중으로, 학교대표께서 말씀하신 절약 캠페인 등을 학생 측에서도 고려해 주면 고맙겠음.
- 위 원 장 : 그렇다면 등록금 심의는 동결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확인하고자 함.
- 학생대표 :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함.
- 외부위원 :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함.
- 위 원 장 : 등록금 동결(안)에 대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셨기에 의결되었음.

□ 안건 2. 첨단융합학부 등록금 책정(안)

- 배석자(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 회의자료 설명
- 안건 2 회의내용
- 학생대표 : 제출해주신 첨단융합학부의 10년간 등록금 수입액과 예산 소요 비용을 봤을 때 35% 정도를 등록금 수입액으로 부담하고 65%

정도를 학교 예산, 국고출연금, 발전기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
걸로 보임. 회의자료에는 현재 첨단융합학부와 관련하여 127억
정도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예산의
재원들 간의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고출연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국고출연금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 설립준비단 : 127억은 첨단융합학부가 확보한 전체 예산이며, 관련 세부 내역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 학생대표 : 첨단융합학부 등록금이 타 단과대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회의자료의 예상 소요 금액을 검토하고자 추가 세부자료를 요청함.
회의자료에 따르면 첨단융합학부는 일반적인 단과대에 비해 비
교과 과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향후 10년 동안 소요 비용
이 290억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회의자료에 제시된 비교과 과
정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학생 측에서 충분히 판단하기에 어
려움이 있었음.

예를 들어 산학연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예산이 10년간 약
220억 정도이고, 학생자치회 활성화 등의 항목도 약 40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용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학생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음.

- 설립준비단 : 확정이 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에 기재하지 못함. 예를 들어 여름방학에 신입생들과
함께 실리콘 벨리에 가는 프로그램이나, 현지 기업에 취업한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섭외해 멘토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비교과
과정 등을 설계 및 추진 중임.

시간 관계상 아직 진행 단계인 것들이 많고 컨택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마다 요구조건이 모두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
하지 못하고 추정치로 설명을 드린 것임. 학생 측에서 궁금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음.

- 학생대표 : 첨단융합학부 18동, 19동 환경 개선과 학부 공간 신축을 위한
비용들이 첨단융합학부의 비용으로 잡혀 있음. 보통 단과대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단과대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국고출연금이나 본부 법인회계에서 충당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현재 학부 공간 신축으로 잡혀 있는 비용이 약 180억 정도인데, 해당 금액이 산출된 세부적인 근거가 궁금함.

- 간 사 : 국고출연금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국고출연금 사용에는 제한이 있기에 시설 사업비는 자체 예산(발전기금, 산학협력단, 등록금 등의 재원)이 합쳐진 본부 예산으로 집행됨. 그래서 건물에 소요되는 국고출연금 비율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각 단과대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단과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학교대표 : 회의자료에 기재된 산출 액수는, 재원별의 관점보다는 수혜자(학생)의 관점에서 10년 동안 다 통틀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그 중 약 35% 가량을 등록금으로 책정하자는 제안으로 이해하면 됨.
- 설립준비단 : 공간 신축 비용 180억 같은 경우, 건물을 짓기 위해 약 420억 정도를 예산을 산정하고 건물의 감가상각(40년)을 고려한 후 10년 동안 재학하는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일부의 건축비를 계산하여 해당 수치를 산출함.
- 학생대표 : 학생측에서도 첨단융합학부 설립과 관련하여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타 단과대와 비교하였을때 등록금 차이가 있다보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임. 산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직접 첨단융합학부에 따로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함.
- 학교대표 : 학교 예산 일정 상 등록금 결정이 1월 3일 이전에는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 전까지 논의를 마치면 되겠음.
- 학교대표 : 첨단융합학부에서도 소그룹 맞춤형 교육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비슷한 형식으로 레슨 혹은 실험실습을 진행하는 음미대나 자연, 공학계열 대학원 교육과정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논의해 본다면 학생들이 좀 더 수긍하지 않을까 함.
- 학생대표 :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타 단과대와의 등록금 차이가 있다는 점임. 첨단융합학부 학생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은 등록금을 내야하

는지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생대표의 역할이기에 조금 더 세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위 원 장 : 첨단융합학부의 비교과 과정 비중이 약 18% 정도이며, 해당 %를 등록금(370만원) 비율에 계산 해보면 대략 70만 원 정도로, 이 차이를 고려하면 자연대·공대 학부 수준(약 299만 원)과도 맞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이미 정해진 등록금에 추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는 매우 어렵기에 새로 창설되는 학부의 등록금은 지난 10년간의 물가 인상률 반영하여 책정해도 된다고 생각함.

학생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해당 등록금 책정액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임.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과 학생대표측에서 추가 협의 후 서면으로 등록금 책정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함.

<폐회 11:20>

2023. 12. 27.

위 원 장 : 강 남 규 (서명)

학교대표 : 박 원 호 (서명)

학생대표 : 조 재 현 (서명)